



데일 지 렌랜드 장로
십이사도 정원희

어떻게 하면 구주를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을까요?

구주께서 탄생하신
마구간을 상상해 봅니다.



성찬을 취할 때
구주를 기억합니다.



우리가 용서받도록
그분이 대신 고통을
겪으셨음을 기억합니다.



구주께서 항상 곁에 계시다는
사실을 기억합니다.



“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”, 리아호나, 2016년
5월호, 39~42쪽에서 발췌.